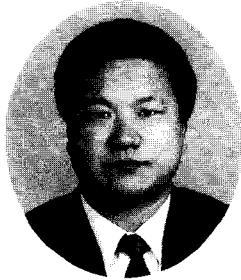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최 명 섭 / 임업연구원

이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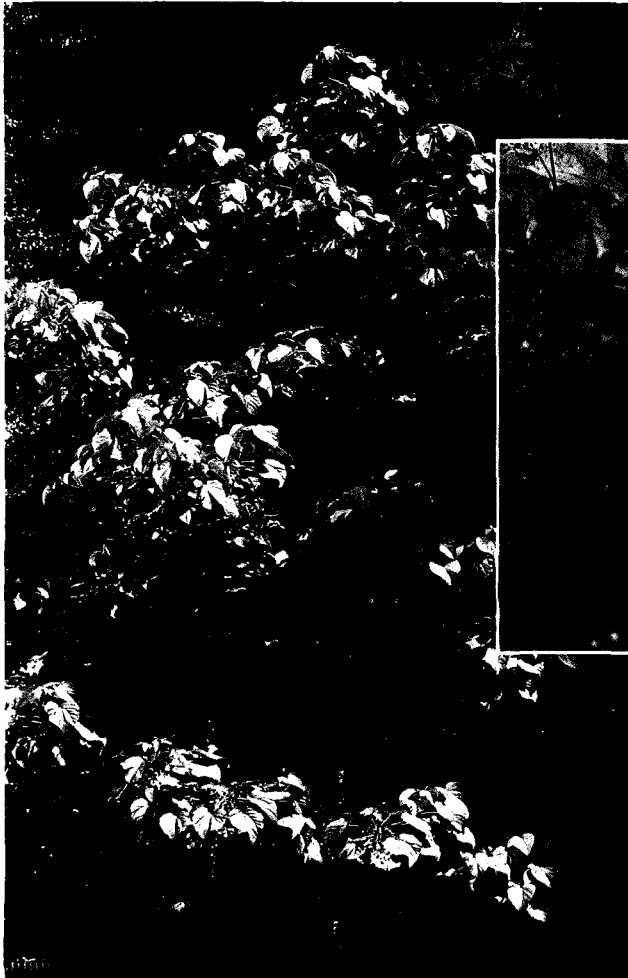
과명 : 이나무과

학명 : *Idesia polycarpa*

영명 : *Idesia*

한명 : 椅, 椅桐, 飯桐

일명 : いいぎり



▲ 이나무 열매

◀ 이나무 전경

이나무 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무이지만 조경수로서 개발 가치가 매우 큰 수종이다. 지금까지는 내한성이 약하여 중부지방에 식재를 꺼려 왔지만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점차 식재하려는 조경인은 많아지고 있으나 소재의 부족으로 아직 널리 보급되지 못한 미개발 조경수로 기업생산하는 곳은 없었으나 최근 관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몇몇 생산자가 재배에 착수하여 훌륭한 조경수로 재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나무, 의나무로 통하나 열매가 팔배같고 잎이 피나무 같다하여 팔피나무라 부르자는 학자도 있다. 향간에 이나무가 먼 나무냐고 물어보면 이나무라고 대답해주면 놀리지마라고 하는 이 나무는 이나무이다. 그리고 먼나무도 제주도에는 훌륭한 가로수로, 혹은 조경수로 식재되어 사랑받고 있는 향토 조경

수이다.

이나무의 속명인 *Idesia*는 네델란드의 식물수집가 이름을 붙인 것이며 일본에서는 열매가 남천열매같다하여 난쟁기리(ナンテンギリ)라고도 하며 중국명은 산동자라고도 부른다.

1. 생태적 특성

제주도, 전남북, 충청남도의 표고 700m 이하의 낮은 지대에 드물게 자라는 낙엽활엽큰키나무로 수고 15m에 흉고직경은 40-50cm로 자라며 큰 것은 키가 20m 흉고직경이 70cm에 이르는 것도 있다.

지리적으로는 일본, 중국에 분포하며 수형은 고르지 못하나 가지가 윤생하며 줄기는 곧고 수피는 황백색이며 매끄럽고 가지는 굵고 길게 자란다. 암수가 따로 있으며, 암나무는 수형이 단정하고 생장이 왕성한 편이다. 토질은 가리지 않으나 습기있는 비옥한 사질 양토에서 생장이 양호하고 내공해성과 염해에도 강해 해안가에서도 잘자라나 어릴때는 추위에 약하여 약간의 동해를 받는 때가 있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어긋나고 심장형이며 끝이 뾰족하고 둔한 톱니가 드문드문 있으며 길이 10-25cm, 넓이 8-20cm로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거의 백색이며 뒷면 엽맥의 만나는 점에 털이 있다. 꽃은 5월

에 길이 20-30cm의 원추화서에 달리며 암수 만그루로서 녹황색이고 수꽃은 지름 1.3-1.6이며 암꽃은 지름 8mm이다. 열매는 지름 8-10mm로 광택이 있고 황적색으로 익으며 한개의 열매 안에 약 10개의 종자가 들어 있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종자로 파종해서 3년이면 키가 3m정도로 빨리 자라는 속성수로써 남부 및 서해안지방의 속성가로수로 좋으며 중부지방의 정원수, 녹음수, 공원수로 군식하여도 좋다. 주택단지나 공원, 유원지 등에는 독립수로 심어도 좋다. 또 종자파종 5~6년이면 꽃이 피므로 가로수나 정원수로 심을 때는 암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운치있어 좋다.

황색 단풍과 황백색의 수피는 눈길을 끌며 10-11월에 열리는 붉은 열매는 포도송이처럼 긴자루에 드리워져 달리고 낙엽이 진후에도 달려 있어서 관상가치가 높다. 병충해, 공해에 강하여 공원이나 가로수로 식재할만하며 열매는 산새들이 즐겨 먹어서 야생조류의 유치에도 좋다. 열매가 아름다운 관상수로 보급하면 많은 수요가 기대되는 아름다운 속성 관상수이다.

4. 번식법

주로 종자로 번식하며 열매는 산새가 즐겨 먹으므로 10월말경 낙엽지기 전에 빨갭게 익은 열매

가지를 짧게 잘라 열매를 채취하면 쉽다. 열매는 따서 손으로 비비면서 물에 씻어 과육을 제거한 후 봉지에 넣어 3~5°C의 저온에 저장한다. 저장중 지나치게 건조시키면 발아력이 상실된다. 파종은 다소 일찍 3월중에 하며 밀과되지 않도록 마른모래와 섞어 2cm 사방에 1알씩 되게 흩어 뿌린다. 덮는 흙의 두께는 2-3mm 정도로 체로 쳐서 얇게 살짝 덮는다. 발아율은 좋은 편이며 어린묘가 5cm쯤 자라면 10-15cm 간격으로 넓혀 심는다. 대량육묘시는 같은 간격으로 솎아주어 비대생장을 돕는다. 가을에는 30-50cm로 자란다. 다음해 봄 싹트기전 이랑넓이 60cm, 포기사이 40cm 간격으로 넓혀 이식하여 비배하면 가을에는 150cm 정도 자라며 절가지도 나온다. 3년째 봄에 160cm사방으로 이식하며 가로수용은 1.8-2.0m 높이에서 밑가지를 전정하여 수형을 잡아준다.

5. 그밖의 용도

열매에 약 17%의 건성유를 함유하고 있으며 목재는 세공재로 사용되나 이나무의 종자 생산량이나 목재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편집자주 : 본지 27호 22p. 기획시리즈의 제목 "자귀나무"가 편집상의 착오로 잘못 게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독자 여러분께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